

원안위 “증기발생기 관막음률 기준치 8% 초과” 한빛 4호기 가동중단 길어질 듯

점검 결과 8.6% 예상 조기 재가동 불투명

영광 한빛원전 4호기의 가동 중단이 길어지고 있다. 증기발생기 관막음률이 처음으로 가동 중단 기준치인 8%를 웃도는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빛 4호기의 재가동도 당초 계획보다 최대 1개월이상 늦어질 전망이다.

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정기정비가 진행 중인 한빛 4호기의 증기발생기 검사 과정에서 전열관의 균열과 마모 현상이 크게 늘었다. 이들 전열관을 막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관막음률은 8.6%로 분석됐다.

한빛 4호기에는 2개의 증기발생기가 있고, 증기발생기당 8000여개의 전열관이 둘러싸고 있다. 전열관에 균열이나 마모 현상이 발생하면 관을 막게 된다. 이 관막음률이 8%이상되면 안전문제 때문에 원전

? 전열관 관막음률 전열관에 균열·마모 현상이 발생하면 관을 막아야 하는데 이를 관막음이라고 한다. 한빛원전 4호기는 설계 당시 관막음률 기준치가 8%로, 대략 640여개의 관을 막게 되면 관막음률 8%를 넘겨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최근 정기 정비기간 동안 전열관을 점검했더니 8.6%에 달하는 전열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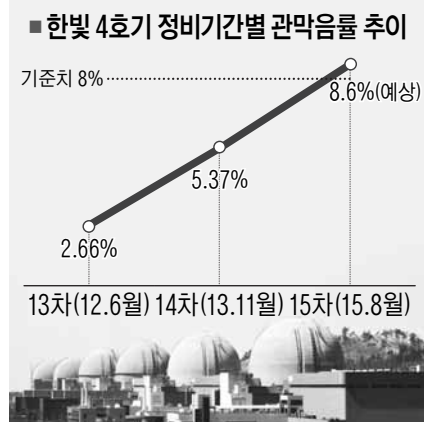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관막음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는 이번 한빛 4호기 정비과

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증기발생기 전열관을 ‘되도록 관막음하리’는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한빛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측은 이를 따를 경우 관막음 기준치를 웃돌아 가동 중단 사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관막음은 최소화하고 대신 결함이 발생한 전열관을 교체 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균열과 마모 등 결함이 발생한 전열관을 정비해 재사용함으로써 관막음을 허용치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던 한빛 4호기는 빨라야 이달 27일, 늦어질 경우 연말에서야 재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관막음 허용치를 8%에서 18%로 상향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 중이다. 한수원은 지난 2월 ‘8000여개의 전열관 중 18%까지의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관을 막아버린 상태에서 가동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원전 전문가와 영광지역 주민들은 한수



원의 이 같은 방안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애초 증기발생기 전열관이 원전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부실 소재로 만들어진 데다 고장도 결함도 잇따르는 상황에서 관막음률을 상향 조정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빛원전 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관계자는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 소재로 사용된 인코넬 600은 부식에 취약한 것으로 판명돼 이미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불량 자재”라며 “설계 당시 증기발생기 관막음률을 8%로 제한했던 것은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로, 발전소 가동 중단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그 제한치를 높여서는 안 되고 전열관 재생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남영전구 폐수는 불법 매립 사실로 영산강환경청 적발...공장 지하시설에 3kg 추정

남영전구 제조설비 철거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수은중독 산업재해보상 신청 <광주일보 10월 13일>을 하면서 제기된 폐수는 불법 매립 의혹이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러나 폐수는 매립이 이뤄진 철거작업이 마무리된 지 7개월, 산재 신청이 최초 접수된 지 2개월이 되도록 폐수는 매립량은 커녕, 주변 환경 영향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 하남산단에 위치한 (주)남영전구 광주공장 내 형광램프 제조시설에서 잔류수은이 불법 매립된 사실을 적발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형화(중간처분)한 뒤 정해진 최종처분시설에 매립할 것을 요구했고 1일 밝혔다. 또 남영전구 대표와 작업 책임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하기로 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그러나 수은중독 사고를 당한 철거 작업자 김모(60)씨 면담과 현장 조사를 거쳤지만, 불법 매립된 폐수의 양을 특정하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남영전구 형광램프 제조설비가 정상 가동할 때 하루 평균 사용했던 수은의 양이 3kg인 것을 감안해 매립량을 3kg으로 추정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위탁선거 위반 혐의 조합장 벌금 70만원 선고...직위 유지

광주지법 형사11단독(판사 남해광)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순 모 조합 조합장 A(70)씨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조합장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B(5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A씨가 아닌 다른 조합장 후보 선거를 도왔다.

재판부는 “A 조합장이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미리 구분해 선거운동에 활용하려 했고,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선거를 기획했지만 직접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

A씨는 3·11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친분이 있는 조합원에게 조합원 명부를 건네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러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배달하는 사람도 행복한 ‘사랑의 연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RCY단원들이 지난 31일 광주시 북구 중흥동 취약계층 세대에게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이날 광주·전남지역 취약계층 210세대에 세대당 200장씩 모두 4만20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공사 중 용접공 추락 사망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30대 용접공이 추락해 숨졌다.

일각에서는 오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완전 개관을 앞두고 공사를 서두르면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3시15분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복합 1관 천장에서 신모(31)씨가 13.5m 아래 바닥으로 추락, 현장에

서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천장에서 조명 용접 작업을 하던 신씨는 작업을 마치고 철수하는 과정에서 안전고리를 잠시 풀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에는 안전펜스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공사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재하청이 있었는지와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초등 야구부 감독이 선수 2명 폭행 물의

강진의 한 초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선수들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1일 강진경찰과 강진 B초등학교 야구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9월25일 이 학교 운동장에서 야구부 감독 박모(27)씨가 선수

인 5학년 A(11)군 등 2명을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구방망이로 폭행했다. 현재 박 감독과 학생들을 상대로 관련 내용을 수사 중인 경찰은 조만간 박 감독을 상해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학교 야구부에서는 지난 7월 선후배

학생 간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감독·코치가 없는 단체기숙사에서 아들(10)이 선배에게 맞아 입술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까지 받았지만 학교 측에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이 학교는 초등학교운동부 ‘기숙사운영전면금지’<광주일보 5월29일 11면> 조치에도 외지에서 전학 온 선수들을

상대로 기숙사를 마련한 뒤 파출부까지 두고 계속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생이 29명에 불과한 이 학교는 야구부만 22명에 이르며, 이 중 타지역에서 야구부로 전학 온 학생은 12명이다.

이 학교 교장은 “폭행이 아니라 체벌수준”이라면서 “피해 학부모와 통화 등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인터넷서 의학용어 배워 의사 행세...수백만원 가로챈 4대



○일정한 주거나 직업도 없이 모텔을 떠돌며 생활하다가 인터넷 등을 통해 배운 의학용어를 사용하며 의사인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을 가로챈 4대가 쇠고랑.

○1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조모(44)씨는 지난 4월 15일 광주시 북구 임동 A(38)씨가 운영하는 자동차 용품점에서 자신이 의사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40만원을

빌리는 등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550여만원을 가로챈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조씨는 평소 자신이 투숙하던 모텔 인근에 자동차 용품점을 운영하는 A씨와 친분을 쌓으며 “형편이 나아지면 고액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조씨가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의학용어를 인터넷서 배워 사용했다”고 설명.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담보 대출

- APT, 주택, 상가, 대지 감평가 대비 70% 가능
-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최대 2,000만원 가능
- 임대보증금 대출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 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키기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	-------------------------------------	---------------------------------------